

# “QR인증법 몰라” 폴더폰 든 고객 30분만에 마트 입장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첫 날...항의·불만 잇따라

직원·QR인식기 확대 배치에도 인증 고객 몰려 혼란  
고령층, 주민증·면허증 스티커 보여주며 겨우 들어가  
접종 유효기간 지나 발길 돌리기도... 17일부터 과태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광주·전남 대형 유통  
매장에서 고객들의 불편과 항의가 이어졌다. 검  
사 공간을 대폭 늘린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수월하  
게 인증이 진행됐지만, 대형마트는 모바일 인증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이 많아 출입시간이 길어졌다.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방역패스 적용이  
추기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광주 16개·전  
남 18곳이 해당한다. 유형별로 백화점 4곳, 대형마  
트 21곳이 들어 있다.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유  
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단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  
일 일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17일부터 위  
반 때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이마트 광주점 1층 입구는 방역패스를  
인증하려는 고객이 몰려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오후 3시께 점포에 온 박남선(75·광주시 서구 유  
촌동)씨 등 일행 3명은 직원과 폴더폰을 두고 씨름  
하다가 30분이 지나 입장할 수 있었다. 이마트 광주  
점은 이날부터 인력(5명)과 QR코드 인식기 5대를  
배치하며 직전보다 2배 규모를 늘렸지만 입구에서

벌어진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백방으로 인증 수단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자 박  
씨 일행은 각 주민센터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에 붙여준 접종완료 스티커를 보여주고 나서야 매  
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모바일 인증이 어려운 방문객은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로 확인받을 수 있지만, 첫날 이 같  
은 지참이 배치 인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뒤  
늦게 인증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또 QR체크가 필  
요없는 마트 입구와 인접한 북도 행사매장 등에서  
즉석식품 장을 보는 손님들도 있었다.

베트남 국적의 한 여성(51)도 직원이 외국인등  
록증을 받아 대신 인증 절차를 밟은 덕분에 겨우 입  
장할 수 있었다.

입구 한 곳에서만 검사를 벌인 대형마트와 달리  
검사 공간을 10곳으로 늘린 광주신세계는 비교적  
원활한 통행 속도를 보였다.

광주신세계는 기존 5곳이었던 검사 공간을 10곳  
으로 확장하고, 1곳당 인력 2명을 교대 배치하고  
있었다.

이마트 광주점에서 지하 신관으로 이어지는 어귀  
에서 방문객 10명이 인식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재  
보니 30초 가량이 걸렸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방역패스가 처음 시행된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홈플러스 동광주점 입구에서 입장객들이 출입인증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0대 이상이 전체 고객의 17% 비중을 차지하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개 출입구에서 방역패스를  
검사하고 있다.

인력은 직전보다 240% 늘어난 17명, QR인식기  
는 60% 증가한 11대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롯데아울렛 2개 점포(월드컵·수완점)도 인식기와  
접점 인력을 각각 30%, 100% 확대했다.

대형매장을 이용한 시민 대다수는 곧장 방역 인  
증에 동참했지만 제도 시행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사이에서는 ‘QR인증법을 모르는 데 어떡하냐’ ‘언  
제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느냐’ 등의 질문과 불만  
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카페와 식당 등에 대해 10일부터 코로  
나19 백신 미접종자와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실시되면  
서, 곳곳에서 출입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점심 시간 광주 동구 충장로3가의 D식당을 찾은 김  
모(65)씨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다며 입장하려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탓에 종업원의 제지를 받  
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판 주소, 살인으로 이어져

2년간 1101건 넘기고 4000여만원 챙겨...홍신소 업자도 구속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피해 여성의 거주  
지 정보를 판매한 홍신소 업자는 구청 공무원에게  
서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  
범)는 10일 이씨에게 50만원의 받고 피해자 A씨  
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홍신소 운영자 B  
(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신변보호  
조치로 A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집에 찾  
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A씨 주소를 판매한 B씨는 2020년 7월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  
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

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홍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  
무원 C(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C씨는 자신이 가  
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홍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건기는 매  
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954만원에 달한다. C  
씨는 수원시 권선구에서 근무했으며, A씨의 거  
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  
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A씨의 거주지 정보를 손  
에 쥐는 과정에 가담한 홍신소는 총 3개였다. 이  
중 공무원 C씨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첫 번째  
홍신소의 직원(37)은 이번엔 함께 재판에 넘겨졌  
다.

검찰은 B씨와 이 직원 외에 이석준의 거래를 중  
개한 다른 홍신소 업자 3명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연협뉴스

## 화순전남대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화순전남대병원이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  
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KAHF)’으로 지정됐다.

10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  
월 지정된 2곳을 포함하면 총 7곳이다. 화순전남  
대병원은 전국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KAHF)’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  
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며,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 전문 평가기관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재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56개 조사항목)’  
와 ‘환자안전(93개 조사항목)’의 2개 영역, 총  
149개 항목(의과 기준)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된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  
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  
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  
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교육청, 폐교 리모델링 후 지역민에 개방

고흥 송산초 등 8곳 쉼터·체험공간·복지시설 조성

전남교육청이 폐교 8곳을 리모델링한 후 지역  
민에게 개방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폐교 8곳을 선정 리모델  
링한 후 지역민에게 쉼터 등으로 시범 개방 운영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폐교는 광양시 진월초월길분교장, 고흥군

송산초, 나주시 봉황초옥산분교장, 영암군 영암  
초학신분교장, 여수시 거문초, 영광군 흥농초동  
명분교장, 해남군 산이서초금호분교장, 진도군  
진도초동거차분교장이다.

도 교육청은 20억여원의 재원으로 ▲교육공동  
체 모두가 행복한 공간 쉼터 ▲온 가족이 함께하

는 학생 체험 공간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주민  
복지시설 ▲마을공동체 공공시설 지역발전 거점  
등 4개 주제로 나눠 해당 폐교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을 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매각 또는 대부’ 위주로 진  
행됐던 폐교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폐교 활용모델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시·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총 18곳  
을 추천받아 실행 가능성, 효과성, 혁신성 등을 평  
가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8곳을 시범 개방 대상지  
로 선정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